

NAJU
*Web
Contents*

2021년 09월 21일 08시 08분

목차

목차	2
임제문학에 대한 평가	3
임제에 대한 '고은'의 시	3
고은(高銀, 본명:고은태(高銀泰))	4
관련내용	4

“명산을 두루 유람하여 자신의 분방, 호일한 기운을 복돋아 시에다 토해냈다.”

- 복사 이항복 「백호집서」 중에서 -

“나는 백사공과 더불어 백호에 대해 자주 논했는데 백사는 매양 그더러 기남자(奇男子)라고 일컫고 시에 있어서는 미상불 삼사(美嘗不 三舍)를 물러나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만약 고각(鼓角)을 세우고 단에 올라 맹주(盟主)를 세워야 한다면 백호 그 사람이 될 것이다.”

- 상촌 신희 「백호문집」서문 중에서 -

“임제는 기개가 (가히) 백두산 같을 뿐이라 하겠거니와 그는 자기의 울적한 기분을 가학하여 많은 시를 쓰고 또 소설 「수성지」를 썼다.”

- 조윤제 「한국문학사」중에서 -

“광객 같기도 하고 또 끝없는 애국사상이 같기도 하고, 호협하고 순결한 시인 같기도 하여, 그는 조선을 '소중화'로 칭하는데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

- 北京大 교수 웨이쉬성 「朝鮮文學史」중에서 -

🎯 임제에 대한 '고은'의 시

당쟁판 옆치락뒤치락 그놈의 벼슬 등진 조선 백운파에게도
 살 까닭이 왜 없으리오
 휘파람이나 불고 다니는 천치바보라 자칭한 임제에게 왜 없으리오
 서도병마사 부임차 가다가서리
 기생황진이 무덤 찾아 자는다 누웠는대
 기생 치맛자락 따위 애도해 마지않는 시 지어 바치고
 그 무덤기에서
 한잔 술 기울인 죄목으로
 임지 당도하기도 전에 파직당한 백호 임제에게
 남은 건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대
 그러던 그도 술에 술독에 빠졌다가
 나주 회진리 향리로 돌아가서
 여러 자식 하나하나한테
 나 죽거든 곡을 하지 말아라 하고
 서른아홉살 뜯구름 백호 임제 가고 말았지요
 이 땅덩어리 좁다 하고 큰 세상 태어나야지 하고 가고 말았지요

- 고은 「만인보」 중에서 -

▶ 고은(高銀, 본명:고은태(高銀泰))

1933년 8월 1일 ~) 전북 군산 태생. 시인. 소설가.

1952년 입산하여 일초(一超)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 승려가 되어 이후 10년간 참선과 방랑을 거듭하며 시를 쓰기 시작함.

1958년 조지훈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폐결핵>을 발표하며 등단.

- 문학적 성향 : <문의 마을에 가서>를 낸 1974년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뉨.
- 전기 시 : 허무의 정서, 생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심미적인 탐닉이 중요
- 후기 시 : 시대상황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투쟁의지를 담음

관련내용

노벨 문학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며, 노벨문학상 후보라는 것 이전에 그의 시가 20여개국에 번역되어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잘 알려짐.

2005년에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름. 노르웨이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비에른스티에르네 비에른손을 기린 비외른손 훈장을 수여.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하뤼 마르틴손을 기리는 상인 동시에 동아시아권 문학에 주는 상인 시카다(Cikada)상 수여.

NAJU

Web Contents

